

3. 사랑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

가족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최초의 교회이자 가장 작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이유는 서로의 부족함을 메우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하나님의 용서와 고치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묻지 않으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 가족 안에서도 서로를 향한 '용납'과 '격려'가 풍성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축복의 언어로 세워주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의 마음으로 섬기며, 형제와 자매는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2026년은 우리 가정이 단순히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의 모임을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강력한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앞에는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잊지 않는 감사,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가족 간의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이웃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 도 인 도 자

찬 송 찬송가 405장 다 같 이

1.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2.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3. 주의 보좌로 나아 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 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후 령>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 기 도 문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행복하고
즐거운
설날되세요

설명절 가정예배

2026

새순교회

SAESOON CHURCH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

예배순서

신앙고백 다 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찬송가 559장 다 같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아버지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 후렴 >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 도 가 족 중

성경봉독 시편 103편 1-5절 교 독

- 1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 2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 3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 4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 5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말 씬 인 도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랑을 심는 가정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2026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설날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히 달력의 숫자가 바뀌는 날이 아니라,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소망을 맞이하는 '시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이 시간은 더욱 특별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걸음을 맡기는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1. 은택을 잊지 않는 신앙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스스로에게 명령하듯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2절).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망각'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다가도, 평안이 찾아오면 그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운이었던 것처럼 착각하곤 합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지난 한 해, 우리 가족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것 같은 위기의 순간도 있었고, 남모름 눈물을 흘려야 했던 아픔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파멸의 위협에서 우리를 속량 하셨고,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덮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마주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택'임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2.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5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가진 것이 적어 보일 때 우리는 조바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도 잃지 않는 평안, 가족 간의 화목,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이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친 우리의 영혼을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